

# 중국 광물 수출통제 개시...새국면 맞은 미중경쟁

### 美공세 수동적 대응하던 中, 원자재 무기화로 공격수단 확보 입박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범위·강도 등 후속조치 주목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1일 발효함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일 밝혔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속에서도 철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90% 안팎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최근 수년간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미중 전략경쟁은 큰 틀에서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방어 구도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번 수출 통제를 계기로 중국이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게 된 모양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공세를 펴고, 중국이 그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최근 수년간 미중 과학기술·산업 경쟁의 주된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도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 원자재를 대미 공격 수단으로 확보한 셈이다.

이에 미국은 1일 업데이트한 에너지부의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갈륨을 포함한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대응 태세를 다졌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달 3일 갈륨 등에 대한 수출 통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미중 간에 벌어진 일들이다.

우선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심 영역으로 국한한다는 취지로 대중국 '디리스크'(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을 공식화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디리스크와 디커플링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견해와 함께, 미국의 경제 분야 대중국 견제가 미중 상호 의존성 인식에 입각한 '현실 감각'을 갖기 시작한 것일 수 있는 만큼 '지켜보자'는 인식이 병존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6월 18~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환점'이 되면서 외교·경제·기후변화 등 다방면에 걸친 미중 당국 간 대화가 최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결국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진입 사건 이후 한동안 '대화 없는 갈등·경쟁' 국면을 거친 미중이 충돌 회피 및 상황 관리를 중시하는 '대화 있는 갈등·경쟁'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예고한 광물 수출 통제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국이 그 '무기'를 미국을 상대로 실제 쓰는 데는 신중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제 외교가는 미국의 대중국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도된 미국의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 시행을 둘러싼 미중 간의 상호 대응은 미중경쟁이 현재의 '관리 국면'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치열한 갈등 국면으로 회귀할지를 예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관측통들은 미측 대중국 투자제한 조치의 시행 강도와 그에 대한 중국의 반발 정도 등이 미중관계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왕이 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퀘벡주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만나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연합뉴스

## 트뤼도 "한국 산불진화 영웅들 감사합니다"

### 한국 구호대 직접 기내 환송 尹, 트위터로 감사 뜻 전해

"We will never forget it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쥘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퀘벡주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귀국을 위해 탑승한 기내에 감사 인사를 위해 올랐던 영상을 게재했다.

트뤼도 총리는 구호대원들 앞에 서서 "가족을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와 이렇게 우리 국민을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며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기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 "한국 구호대가 지난 몇 주 동안 퀘벡에서 산불을 진화했다"며 "캐

나다 국민을 대신해 한국 구호대의 영웅적 활동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트위터에 "한국 구호대가 귀국하는 길에 트뤼도 총리가 깜짝 방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구호대 활동은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트뤼도 총리의 기내 방문 당시 한국 구호대가 탑승한 수송기는 귀국을 위해 오타와 공항에 대기 중이었다.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트뤼도 총리가 마침 오타와 공항에 도착하면서 "깜짝" 방문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70명, 소방청 70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3명,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인력 3명과 외교부 인력 6명으로 구성된 한국 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일 현지로 파견됐다.

이들은 오타와에서 북쪽으로 510km 떨어진 퀘벡주 르벨-쉬르-퀘비옹 지역에서 미국 긴급구호대와 함께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한 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2일 한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날 유네스코는 기후 변화와 과잉 관광으로 훼손된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해수면 상승으로 잠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전날 유네스코는 기후 변화와 과잉 관광으로 훼손된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 러 유람선, 조지아 갔다 달걀 맞고 쫓겨나

### "침공국 꺼지라" 구호 외치며 시위

러시아 유람선이 조지아에 입항했다가 시위대의 항의를 받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조지아 집권당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선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점령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승객

800여명을 태운 러시아 유람선 '아스토리아 그란데'는 지난달 31일 흑해 항구도시 바투미에 정박했다.

하지만 승객들이 하선하자 기다리던 시위대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국가, 유럽연합(EU) 깃발을 흔들며 항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유람선을 향해 달걀을 던지거나 승객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BBC에 따르면 이날 하루 시위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1명을 포함한 23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아스토리아 그란데는 결국 다음 날인 1일 기존 계획을 앞당겨 바투미 항구를 떠났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아스토리아 그란데는 바투미에 입항했다가 시위대의 항의로 일정을 축소했다.

아스토리아 그란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바투미를 거치는 일정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투미 시위가 확산하기 시작한 건 해당 유람선에 승선한 러시아 관광객 일부가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실이 전해지면 서다. /연합뉴스

## 트럼프 우군들 속속 기소...부정선거 밝힌다며 투표기 손대

### 주 의원부터 말단 관리까지 사법처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우군들도 속속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데이비드 랜던 전 미시간주 하원의원, 매슈 데퍼노 전 미시간주 법무부 장관 후보 등 공화당 인사 2명이 허가 없이 선거 장비에 손을 댄 혐의로 1일(현지시간) 기소됐다.

그간 D.J 힐슨 미시간주 특별검사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후 미시간주 부정선거를 입증

한다며 선거관리원들을 쫓아 투표 집계기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 때문에 기소된 직후에 이뤄졌다.

랜던 전 의원과 데퍼노는 대선 결과가 조작돼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추종했다.

이들은 투표 집계기를 디트로이트 교외로 가져가 뜯어보면서 반출을 도운 선거관리인이 불안을 호소할 때까지 수주,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